

#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

-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

- 목차**
- 1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배경
  - 2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 3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부산 선언
  - 4 新조선통신사, 문화예술을 통한 한일간 관계 개선
  - 5 후속 조치 및 정책 제안

- 요약**
- 본 동향 보고서는 2023년 5월 4일~5일에 걸쳐 개최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문화적 실천, 충돌하는 이웃 간 평화 구축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파트너십,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정책적 배경 설명
  -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 소개를 통해 부산문화재단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 연대 · 협력’이라는 정책 어젠다의 이론적 배경 제시
  - 2023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의 주요 발제 내용과 제안의 요약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며, 동시에 해외의 주요 문화관련 선언 분석과 시사점을 조사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부산 선언의 목적과 구성 항목 소개
  - 특히,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외교의 상징인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을 바탕으로 등재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인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다양한 제안 공유
  -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의 후속 조치 및 정책 제안으로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 확산 및 지속가능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며, 新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플랫폼 역할 강화, 13차 新조선통신사 사행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뉴 파트너십 제안

#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

## -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조정윤 센터장

### 1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배경

#### ■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문화적 실천

- 2015년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sup>1)</sup>
- 17개 목표에 문화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UN 산하 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의 사회적 영향' 강화를 위해 문화계에서도 SDGs를 적극적 연계하는 사례 증가
-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SDGs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디어와 예술이 기본이 되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 하는 기회 제공<sup>2)</sup>

#### ■ 충돌하는 이웃 간 평화 구축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파트너십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른 평화와 연대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
-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2023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해 "조각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충돌하는 이웃 간 평화와 협력을 주요 어젠다로 설정
-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문화의 사회적 역할로 충돌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극적 실천이 더욱 중요

1) '한명이라도 소외 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으로 17개 과제, 169개 세부 목표를 설정했으며, 국제사회 전체의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함

2) 캐나다 예술교육가인 마크 레이드(Mark Reid)는 Arts Education and the SDGs라는 기고문(2017)에서 무용, 연극, 음악,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SDGs 17개 각 과제를 적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 2019년 발표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은 전략과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목표를 제시
- 이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문화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데, 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
- 또한, 재단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이라는 전략과제 아래, 평화외교, 문화교류의 상징인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인 조선통신사를 통한 국제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 2 유네스코의 문화정책

### ■ 유네스코 현장과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UNESCO)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에 채택된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유네스코 헌장은 이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네스코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제시
- 유네스코 헌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평화 증진>, <상호 이해와 존중 증진>, <지식 공유와 전파>, <인권 존중> 등으로 구분

- 유네스코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 증진>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통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
- 또한 <상호 이해와 존중 증진>은 국가들과 그들의 문화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이는 민족, 종교, 언어의 차이를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통해 달성 가능함을 강조

## ■ 유네스코의 최근 정책 동향

- 유네스코는 2018년 'Culture for the 2030 Agenda'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람(PEOPLE)', '세상(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5가지 분야(5Ps)에서 문화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
- 또한, 'Reshaping Cultural Policies (global report 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문화정책 재구성의 목표 추구를 SDGs에 연계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SDGs 17개 목표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 '평화, 정의와 제도(16)', '파트너십(17)'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
- 2019년 유네스코는 SDGs 이행에 대한 문화의 역할과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Culture2030 Indicator를 발표하였는데, 지표는 총 4개의 주제영역과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UN의 지속 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문화영역 주제별 지표 설정<sup>3)</sup>

## ■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문화재단의 정책 어젠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평화, 교류와 연대를 표방하는 도시 부산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정책의제 선도가 중요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 연대 · 협력'은 유네스코 헌장의 가장 핵심적 가치로 문화예술이 국제 의제에서 평화,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목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정책 어젠다를 세계적으로 발신할 필요성 증대
- 부산문화재단은 2022년 9월 22일,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사업인 '조선통신사 세계로'의 일환으로 '문화를 통한 평화 회복'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적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UNESCO 본부를 방문,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amirez, 유네스코 문화 총괄 ADG), 파올라 레온치니 바르톨리(Paola Leoncini Bartoli, 문화정책 개발국장)와 업무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은 충돌하는 이웃 간 평화를 어떻게 회복시켜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How arts & culture can change the world by restoring peace between conflicting neighboring countries?'"라는 정책의제에 대한 인식 공유

3) SDGs 실천을 위한 UNESCO Culture 2030 Indicator는 '환경과 회복력' '번영과 생활' '지식과 기술' '포용과 참여'의 4개 주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용과 참여 영역 중 18번째 세부지표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를 설정하여 사회적 결속력 구축에 있어 문화의 기여도를 평가

- 2023 조선통신사 부산 축제 기간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 부산선언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협력과 사무총장보의 기조연설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네스코 측은 적극적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재단과 구체적 실무 협의 진행

◆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스 코멘트

“부산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 내용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귀 재단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문화를 통한 평화회복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정책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 역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다. 2023년 ‘문화를 통한 인류 평화 공존의 가치’를 부산문화재단이 선도하고자 하는 점,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동 등재한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실천적 노력이 유네스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낸다.”

◆ 유네스코 정책개발국장 파올라 레온치니 코멘트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 구축’ 기획을 높이 평가하며, 유네스코 관계자 패널리스트 참가 여부를 포함한 유네스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유네스코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에 부산문화재단의 협력과 참여를 희망한다”

■ 2023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 <기조발제> '문화교류를 통한 포용과 평화 회복'(유네스코 사무총장보 Ernesto Ottone R)
  - ▶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해 문화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함. 문화가 진정한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등의 지점에서 부산문화재단과 같은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 의지 피력
- <주제발표> '포용과 화합, 협력을 위한 UNESCO 문화정책 어젠다'(유네스코 문화정책개발국장 Paula Leoncini)
  - ▶ 유네스코가 소통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견인하고 평화적인 문화정책에 힘쓰고 있는 실증적 사례 소개. 디지털 기술확장으로 상호연결이 가속화되었으나 오해, 편견, 분열적인 목적을 가진 문화의 도구화는 건설적인 소통을 방해, 부정적인 편견에 맞서는 노력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문화 리더러시' 발달 필요
- <주제발표>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 지역 갈등 극복의 해결책'(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 총괄 Feng Jing)
  - ▶ 2014년 유네스코 등재 '실크로드'를 모범사례로 소개,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UAE 등이 초국가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문화유산이 국제협력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
- <주제발표> '평화와 연대를 위한 부산의 실천적 대응과 노력'(고신대 석과교수 남승우)
  - ▶ 세계를 인식하는 세계관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제기, 조선통신사의 평화정신을 지구촌 전체 국가에 확산 필요,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신 조선통신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노력에서 해양성의 가치 강조
-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국제평화에 필요한 이유로 '예술과 문화는 정치와 경제로부터 독립적', '도시 간 교류에 필수적', '개인과 개인 간의 깊은 신뢰관계 형성' 차원에서 강조됨

### 3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부산 선언

#### ■ 해외 주요 문화 관련 선언

-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1982, UNESCO)
  - ▶ 1982년 유네스코는 멕시코시티에서 오늘날 문화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제정. '문화적 정체성', '문화 개발', '문화 민주주의', '문화재', '예술창작 및 예술교육', '타 분야(교육, 과학 등)와 문화의 관계', '문화 기획, 행정, 예산' '국제 문화협력' '유네스코의 역할'등을 중심으로 총 54개 각호로 구성
-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UNESCO)
  - ▶ 2001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문화 다양성 헌장은 2000년 이래 전세계 문화정책 수립의 준거가 되고 있으며, 선언문은 서문과 총 12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각 회원국이 선언문을 배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명시한 실행계획 첨부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4, #culture2015goal)
  - ▶ 전세계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연대하여 UN의 SDGs 17개 과제에 문화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선언. 주요 참여주체들(문화관련 국제기구, 협회, 단체)이 선언문에 기재되었으며, 선언이 왜 중요하며, 시급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 주요 문화관련 선언의 시사점

- 국제기구가 주도하여 국제선언 혹은 규약으로서 발표하는 데, UNESCO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 공동 어젠다로 설정하며, 회원국들은 규약에 근거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 총회 기간 중 최정상의 주요 어젠다 내지는 문화분야 주장들 중심으로 선언하며, 조약(charter)보다는 협약(agreement)과 선언(declaration) 중심이며, 협약의 명확한 형식구조인 기본이념과 규범 조항의 형식구조를 가짐

#### ■ 부산 문화 컨퍼런스, 부산 선언문 주요 내용

- 2023년 5월 4일, 부산 문화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문화 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부산 선언문을 통해 발신
- 부산 선언문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문화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는 문화 활동, 창의적 표현, 국제 협력을 강조
- "우리는 문화정책이 국제적 과제인 평화, 상호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부산 선언문은 <문화적 다양성과 권리> <평화를 위한 예술과 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정책의 사회적 영향> <문화 파트너십>

<문화 프로젝트에서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7개 항목으로 구성

- 문화예술이 세계 평화 회복과 국제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문화 다양성과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장려하며, 문화 다양성과 평화,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 정책 입안자, 예술가, 학자, 문화 단체 등의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 사례와 지식을 공유하여 평화와 문화 교류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
- Busan Declaration for Peace and Partnership Through Arts and Culture : Embracing UNESCO's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Spirit of Joseon Tongsinja(영문), 文化藝術を通じた平和と協力の釜山宣言 : ユネスコ文化多様性世界宣言と朝鮮通信使の精神の受容(일문)으로도 각각 작성<sup>4)</sup>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과 조선통신사 정신의 수용

-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부산 선언문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에서 영감을 받아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이념을 선언하며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 부산이라는 도시에 깃든 평화 정신과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중요성에 영감을 받아 깊은 신념과 일체감을 가지고 예술과 문화를 통한 평화와 협력 증진에 의지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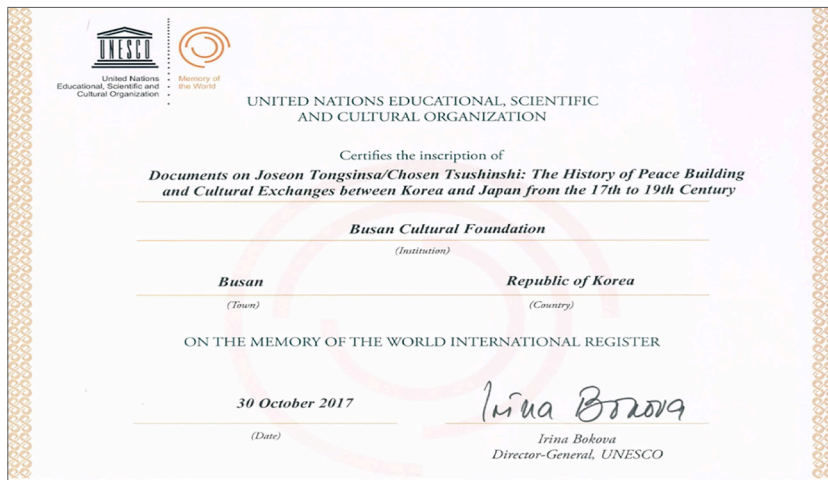
부산 문화 컨퍼런스 참가자 전원, 부산 선언문 낭독(2023.05.04)

4)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에 종합토론자로 참가한 요시모토 미츠히로(吉本光宏)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 이사는 '문화로부터 평화를 생각한다'라는 컬럼을 통해 부산 선언문을 일본 전역에 발신했으며, (<https://www.nli-research.co.jp/report/detail/id=74889?site=nli>), 그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경 아츠 카운슬 이사회(2023.06.09)에서도 부산 선언문을 중점적으로 소개, 일본 내에서도 문화 예술을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냄

## 4 新조선통신사, 문화예술을 통한 한일 간 관계 개선

### ■ 조선통신사,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외교

-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연구학회<sup>5)</sup>가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일 공동 등재(2017.10.31.), 이는 최초의 한일 공동 등재이자 부산시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민간과 지역이 주도한 최초의 등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2018년 대통령상 세종문화상 수상
-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단절된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대등한 교류를 통해 상호인식의 폭을 넓힘으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기여
-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한일 양국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만큼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사례<sup>6)</sup>
- 특히, 한일 공동의 문화유산인 조선통신사에 대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긍지가치(prestige value), 상속 가치(bequest value)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며,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 외교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가치



한일 공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

5) 한일 친선우호의 역사적 자산인 조선통신사의 정신인 '성신교린'을 기본자세로, 21세기의 '아시아 태평양시대' 즉 '한일 新시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조선통신사와 관련 있는 연구 지역 중심으로 1995년 11월 결성되었음. 현재 19개 지자체와 62개 민간 단체, 100여 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6) 유네스코 등재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진정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비 대체적인 유산일 것 (원본, 유일본), ②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산일 것(보편적 가치), ③관리 계획이 서 있을 것임.



■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공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2023년 5월 5일 부산에서 한일 유네스코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회의 개최
-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개발 및 협력, 조선통신사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담론 형성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일 유네스코와 관계자들의 인식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청소년 교류 사업 확대, 조선통신사를 알리는 다큐멘터리나 극영화 제작, 국제학술대회 논문상 제정 등이 제안됨
-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등 2025 오사카·2030 부산 엑스포의 문화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일 양국의 학생 간 문화교류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금 확충 및 관련 사업 실행이 제안됨



문화예술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2023.05.04)

## 5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 ■ 유네스코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 확산 및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 구축

-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와 정책 연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테이블 공론의 장 구축
- 국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 연계를 통해 국제 문화정책 의제 중심 선도를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부산 문화 컨퍼런스' 고유 목적 사업화 추진
- 아시아-유럽의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 플랫폼으로서 '문화 실크로드' 구상에 관한 협력과 논의
- 평화와 연대의 문화정책 의제를 전 세계적으로 발신하기 위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의 지속 개최
- 평화와 협력을 위한 문화 이동(cultural mobility)과 문화 연대(partnership)에 공헌한 전 세계 문화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 어워드(cultural diplomacy award)' 구상

### ■ 新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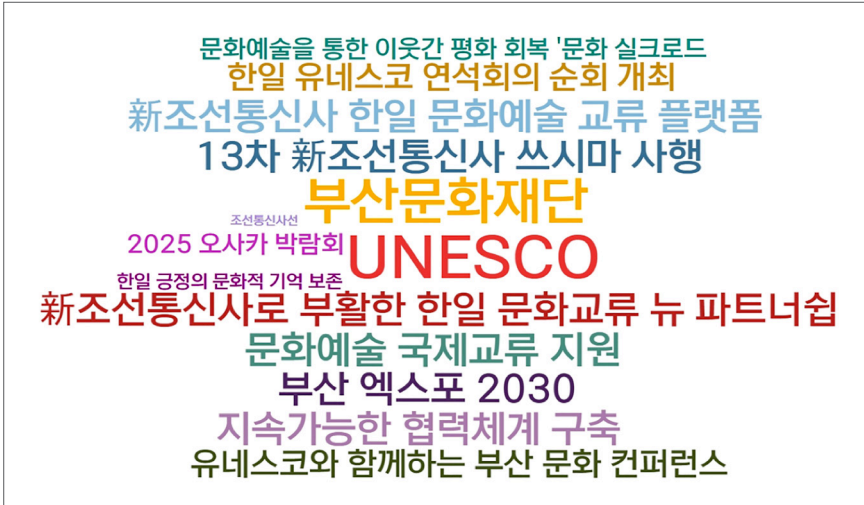
- 한일 공동 세계기록유산인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와 협력' 가치 확산을 위한 한일 유네스코 연석회의 양국 순회 개최
- 한일 양국 유네스코 위원회 차원의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지속적인 청소년 대상 역사, 문화교류 캠프 개최를 통한 양국 상호 인식 개선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에 근거, 한일 문화예술인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글로벌 지원
  -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한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확장된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瀬戸内国際芸術祭)협업 통한 시각 예술인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장 협력 지원, YPAM(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와 연계 통한 공연 예술인 해외 네트워크 확장 및 진출 지원

### ■ 13차 新조선통신사 사행을 통한 한일 문화교류 뉴 파트너십

-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한일친선우호협회, 일한친선우호협회,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조선통신사 관련 관계기관, 문화예술 전문가, 학계,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교류 新조선통신사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UN SDGs) 16번(Peace), 17번(Partnership) 과제 확산과 한일 양국의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위한 新조선통신사로 부활한 한일 문화교류 뉴 파트너십 필요
- 특히, 12차 대마도 사행(1811년) 이후 중단된 조선통신사를 부산문화재단,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마도시가 2023년 8월에 공동으로 계획 중인 13차 新조선통신사 부산-대마도 사행을 통해 한일 평화 문화교류를 복원하며, “문화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뉴 파트너십”을 한일 양국 의제로 부각

- 오사카 박람회(2025) 성공 및 부산 엑스포(2030) 유치 기원 범업 조성과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일 新조선통신사 사업 다각화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와 연대의 정책제안 및 향후과제 키워드

### 참고문헌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 (부산문화재단, 2018)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부산문화재단, 2019)
-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2021)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 원형복원 사례연구』 (조정윤, 향도 부산42호, 2021)
- 2020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부산 문화 컨퍼런스 자료집 (부산문화재단, 2023)
-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
- 부산일보(2023. 05. 04). 다양성 품은 문화, 평화·협력 이끄는 '진정한 공공재'
- 부산일보(2023. 05. 07).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치 확산, 가장 중요한 과제”
- 국제신문(2023. 05. 08). “문화 연대로 세계 평화를” 부산선언…韓日 어린이 교류 확대 한뜻

